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The Impacts of Social Norms and Personal Ethics on Recycling Behavior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전공
교수 유두련*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정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전공
강사 박영미

Dep. of Living Environmental Studies , Daegucatholic Univ.

Professor : You, Doo-Ryon

Dep. of Home Management , Andong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Jeong-Hee

Dep. of Living Environmental Studies , Daegucatholic Univ.

Lecturer : Park, Young-M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norms and personal ethics on recycling behavior. For this purpose, survey data from four hundred and fifty seven individu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n SPSS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norms had a positive impact on personal ethics and recycling behavior. Second, personal ethics significantly affected recycling behavior. Third, awareness of the consequences of recycling behavior (AC)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AR) did not significantly translate personal ethics into actual recycling behavior. Fourth,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AR) and awareness of consequences of recycling behavior(AC) affected recycling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courage recycling behavior, it is necessary to inform and educate the public so as to enhance social norms and personal ethics.

▲ 주요어(Key words) : 사회규범(social norms), 개인규범(personal ethics), 재활용행동(recycling behavior),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wareness of consequences of recycling behavior : AC),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scription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 AR)

I. 문제제기

소비자로서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과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부터 끊임없이 환경오염

을 유발하게 되며, 동시에 이러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환경오염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나 발전도 환경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

* 주저자 : 유두련 (E-mail : dryou@cu.ac.kr)

이 탄생하였다. 그 이후에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활동을 해야함을 뜻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의 실천은 소비자들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구매·사용·처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환경의식적인 소비자의 처분행동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원절약을 통하여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쓰레기문제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주므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행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환경부, 1998).

소비자 재활용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재활용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변화를 행동변화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재활용태도-행동 일치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재활용행동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에는 재활용행동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향상되었으나 재활용행동의 실제적인 증가는 대단히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센티브 제공이 중단되면 재활용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Stern & Oskamp, 1987).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행동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환경의식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안길상 외, 1993; 최남숙, 1994; 이연호 외, 1997; 박인숙 외, 1998) 환경교육, 환경지식, 소득 등의 변인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활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재활용행동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심미영, 1999; 이종호 외, 20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활용행동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재활용행동이 소비자 개인으로부터 시간, 노력, 인내심과 불편함 등의 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행동 후에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나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특성, 즉 이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이타주의적 행동특성으로 인하여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는 규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chwartz, 1968; 1973; Hopper & Nielsen, 1991; Osterhus,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규범적 이론에 근거하여 재활용행동을 이해하고, 변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행동에 관한 사회규범 및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재활용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재활용행동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시성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규범 및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조절적 변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선행연구(Schwartz, 1968; Stern et al., 1985-86; Hopper & Nielsen, 1991; Osterhus, 1997)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행동결과에 관한 지각된 소비자효과성과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귀인지각 등의 변인이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목표는 가정에서 자원의 재활용행동에 대하여 규범적 접근에 의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사회규범·

<표 1> 재활용 소비생활양식 유형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재활용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입는 옷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단체·기관에 기증 - 아이들 옷은 친지나 주위에 물려줌 - 못쓰는 옷가지는 적절히 활용하여 소품이나 재활용 품으로 한번 더 활용 - 옷가지들 버릴 때는 구분하여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함 - 쌀뜨물은 바로 버리지 않고, 화분이나 정원 등에 재사용 -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활용 - 재활용 가능한 음료용기는 분리하여 폐기 -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 음식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음 - 음식물분쇄기를 사용금지 - 식기의 음식찌꺼기나 기름기는 휴지로 닦아내고 세척함 -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배출 - 산이나 야외에서 쓰레기는 합부로 버리지 않고 가져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은 필요로 하는 곳에 싼값으로 제공하거나 기증 - 재활용 가능 품목은 분리하여 폐기 - 쓰레기 발생량 또는 부피를 줄여서 배출 - 유해물질 함유 제품(형광등·건전지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폐기 - 장바구니 사용

개인규범의 수준은 어떠하며 둘째, 사회규범은 개인규범 형성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며, 다시금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영향력이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재활용행동결과에 관한 지각된 소비자효과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변인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에 비추어 불태워지는 행동의 특성으로서 환경의식적인 자원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활용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활용행동의 내용 및 특성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행동은 자원의 구매·사용·처분행동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구매행동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보전형 상품의 구매와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상품의 구매, 사용행동에서는 제품의 장기적 사용·환경오염감소를 위한 사용·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 사용행동을 의미한다. 처분행동은 분리수거와 재활용과 관련된 행동이다(심미영, 1999). 분리수거라 함은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유해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의미하며, 재활용과 관련된 행동이란 폐품의 재활용·재사용 가능 품목의 재활용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거나 유용하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하는 행동으로 요약된다. 이를 의식주 생활영역에서 그 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오늘날 환경오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1998).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환경부담을 줄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재활용행동은 자원절약을 통하여 자원소비의 최소효과, 쓰레기수거 비용의 절감효과,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 감소효과, 폐기물이 노출되거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감소효과 등을 통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 관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여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금의 일환으로서 소비자보급금제도를 시행하였다(환경부, 2002). 더 나아가 1995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활용 및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재활용 가능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재활용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95-23)을 제정하여 상품의 용기, 포장 또는 상품자체에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1998년에는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0.96kg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1kg미만에 머물렀으나 2001년에는 다시 1.01kg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02). 생활양식이 다양화되면서 폐기물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질도 악성화·고질화되면서 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고찰

소비자 재활용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재활용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Vining, et.al. 1990; 안길상 외, 1993; 최남숙, 1994; 이연호 외, 1997; 박인숙 외, 1998). 그 다음으로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행동은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태도의 내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태도변화를 행동변화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태도-행동일치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심미영, 1999; 이종호 외, 2000).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재활용행동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며(Couch, Garber & Karpus, 1978-1979; Jacobs & Bailey, 1982-1983; Luyben & Cummings, 1981-1982; Stern & Oskamp, 1987), 끝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그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 등이다(Luyben & Bailey, 1979).

재활용행동 향상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응답자의 환경의식 또는 생태주의적 가치관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재활용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재활용행동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Schwartz(1968, 1973)는 환경친화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사회-심리적 모델(social-psychological model)을 통하여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의 동기는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이타적인 사회규범이 개인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재활용행동이 자신의 신념과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적인 상품구매행동과는 달리 소비자 개인으로부터 시간, 노

력, 인내심과 불편함 등의 비용을 요구하게 되며 행동 후에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나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특성, 즉 이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이타주의적 행동특성으로 인하여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는 규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활용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한 재활용 행동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환경의식적인 재활용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타주의적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Heberlein(1975), Davidson-Cummings (1977), Black(1978), Van Liere & Dunlap(1978), DeYoung(1985-1986), Stern et al., (1985-1986), Hopper & Nielsen(1991) 등이 있다. DeYoung(1985-1986)은 내부적 동기와 개인적 만족이 재활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익은 찾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 점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Stern et. al, (1985-1986)은 Schwartz의 사회-심리모형을 환경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소비자의 지지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에 확대시켜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규범, 지각된 소비자 효과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책임 등의 변인은 환경에 대하여 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책임을 판단하는데 유의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타적 행동의 형태로서 재활용의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타주의적 행동으로써 재활용 행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Hopper & Nielsen(199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규범, 개인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소비자 효과성 등은 지역내 재활용프로그램 참여정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관여하는 상황에서 사회규범이 개인의 가치 및 규범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Samdahl, 1989) 재활용행동에 대한 연구는 규범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규범과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재활용행동을 규범이론에 의하여 고찰해야 하는 것은 재활용이 이타적 행동으로서 재활용재료를 절약·분류·운반하는 수고를 해야하므로 개인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나 개인적인 보상은 즉각적으로 없으나, 사회 전체의 장래에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Hopper & Nielson, 1991; Osterhus, 1997). 이타적 행동으로서 재활용행동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규범에 따라 실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도덕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을 말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chwartz, 1968). 그러므로 이타적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되어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3. 재활용행동에 관한 사회규범과 개인규범간의 관련성

규범적인 접근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타적인 사회규범이 개인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도덕적 행동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규범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타인이 도덕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이러한 규범들과는 거리가 멀고, 행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그 대신에 사회적 규범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수준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지만 개인적 규범과는 구별되는 것은 그것들을 위반하거나 찬성하는 결과가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 수준에서 존재하고, 반면에 개인적 규범은 도덕적인 태도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Heberlein, 1975; Schwartz & Howard, 1980).

이와 같은 규범적인 접근은 이타주의적 행동특성을 가진 재활용행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Hopper와 Nielsen(1991)은 Schwarz(1968)의 이타주의 행동에 대한 사회-심리모델에 근거하여 재활용행동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Hopper & Nielsen(1991)은 재활용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chwarz 모델을 검증한 결과 사회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개인규범을 매개로 하여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sterhus(1997)는 Schwarz(1968)의 사회-심리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규범적 접근에 의한 설명을 해보고자 하였다. Osterhus(1997)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기사용량통제라는 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 대한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규범은 다시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 없이도 개인의 사회적 향적 행동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Osterhus(1997)는 사회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절약행동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그는 사회규범이 에너지절약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종호와 정형식(1997)은 소비자 리사이클링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개별소비자는 리사이클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회규범에 의해서 타인을 의식하여 리사이클링을 하게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Schofield(1975)는 자원봉사행동연구에서 사회규범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동모(1997)는 Schwarz가 제시한 규범이론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폐기물 재활용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회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규범은 개인규범 형성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가설 2> 사회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4. 재활용에 대한 개인규범과 행동간의 관련성

Schwartz(1968)의 이타주의 행동에 대한 사회-심리모델(social-psychological model)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규범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사회규범이 내면화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태도를 구성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항상 소비자행동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개인적 규범이 상황에 대하여 적합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정의되었을 때 그 규범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Schwartz는 개인규범이 행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wareness of consequences of behavior : AC)과 책임귀인지각(ascription of responsibility : AR)을 지적하고 있다.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과 책임귀인지각이 높은 경우 개인규범은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이란 소비자가 환경의식적인 재활용행동을 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지각된 소비자효과성을 의미한다. 책임귀인지각이란 환경문제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도 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먼저 Hopper & Nielsen(1991)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재활용소비자들의 경우 사회규범은 개인규범을 매개로 하여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이 높을 때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정도가 더 커지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Osterhus(1997)는 에너지절약행동에 대하여 규범적·경제적·구조적 통합모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 대한 행동연구에서 개인규범이 에너지절약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Osterhus는 더 나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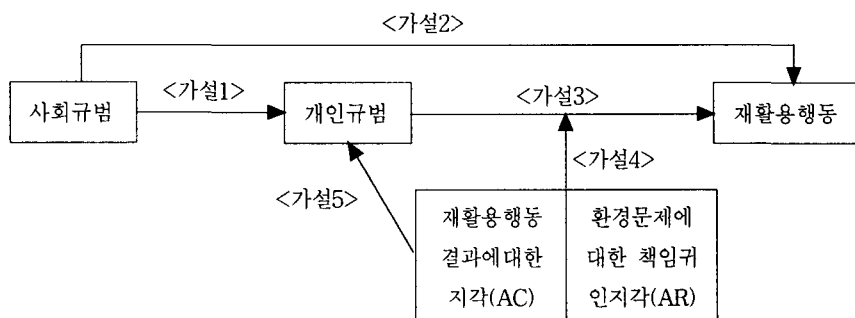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과 에너지절약행동을 조절하는 역할 이외에 개인규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 및 행동간에 조절적 역할을 하지만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Osterhus(1997)는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모(1997)는 응답자의 폐기물 재활용행동을 분석한 결과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도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 사이에서 조절적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Vining & Ebro(1990)는 주관적 규범은 리사이클링행동 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실시지역의 소비자가 미실시 지역의 소비자보다 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종호와 정형식(1997)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규범은 리사이클링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이들의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간의 조절작용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경우에는 소비주체로서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로서 세분하여 각각의 변인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및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4-1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4-2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4-3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정부, 기업, 소비자일 경우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

가설 5>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및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5-1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은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5-2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행동에 대하여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력, 개인규범이 다시금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분석하고,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구성

1) 재활용행동

본 연구에서 자원의 재활용행동이란 일단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거나 유용하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소비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Antil(1984)의 척도와 재활용행동 측정을 위한 심미영(1999)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인이 직접 재활용을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규범

일반적으로 규범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opper & Neilson(1997)의 정의에 따라 사회규범은 조사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재활용에 관한 도덕적 행동으로서 '타인이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 행동하기를 기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개인규범

Schwartz에 의하면 사회규범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수준의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들을 위반하거나 찬성하는 결과가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규범이란 재활용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태도로 내면화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활용행동에 관한 응답자의 의무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Heberlein(1975), Hopper & Nielsen(1991), Schwartz & Howard(198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전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이란 '소비자 개인의 재활용행동이 환경문제 개선에 어느 정도로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Roberts(1991)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전체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로 소비자 자신, 기업의 생산활동 또는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영(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이 정부의 미흡한 정책 마련 또는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의 부재 또는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소비생활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소비자관련 5문항, 정부관련 4문항, 기업관련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각 변인에 있어서는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4월 14일부터 4월15일까지 50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를 위하여서는 2003년 5월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486부를 회수하였으며 자료검토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29부를 제외한 45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PC+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가설 1>의 사회규범의 개인규범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과 <가설 2>의 사회규범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및 <가설 3>의 개인규범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4>의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대

한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5>의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개인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변인의 일반적인 수준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핵가족인 것으로 사료되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7

변인	집단	N	%
성별	남	164	36.0
	여	292	64.0
연령	20세 이하	119	26.1
	21-30세미만	160	35.1
	31-40세미만	123	27.0
	41세 이상	54	11.8
주택형태	단독주택	129	29.6
	아파트	267	61.2
	연립주택	40	9.2
가족형태	핵가족	392	88.1
	확대가족	53	11.9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35	8.0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41	32.4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35	31.0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6	15.2
직업	400만원이상	58	13.3
	전문직	121	26.7
	사무직	100	22.1
	학생	184	40.6
학력	기타	48	10.6
	고졸이하	42	9.2
	전문대졸	43	9.5
	대재	162	35.6
	대졸이상	208	45.7

* 전체 빈도의 차이는 missing value 에 의한 차이임

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추출법을, 요인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회전방식은 배리맥스회전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7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아이겐값이 1.0이상, 요인적재량은 0.3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이 최소 0.501에서 최고 0.849까지의 범위에 있어서 모두 기준인 0.3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겐값은 재활용행동 12.516, 환경행동 결과에 대한 지각(AC) 4.325, 사회규범 3.197, 개인규범 2.769, 결과에 대한 소비자책임귀인지각(ARC) 1.723, 정부책임귀인지각(ARG) 1.478, 기업책임귀인지각(ARB) 1.328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비율의 59.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인의 크론바 알파계수(Cronbach's α)를 구한 결과 재활용행동 .884,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 .921 사회규범 .881, 개인규범 .892, 결과에 대한 소비자책임귀인지각 .800, 정부책임귀인지각 .811, 기업책임귀인지각 .784로 나타났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38으로 구성개념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인들의 수준

변인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주요변인의 수준

변인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규범	3.65	0.581	
개인적 규범	4.11	0.605	
재활용행동 결과에 대한 지각(AC)	4.35	0.556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	소비자	4.00	0.547
	정부	3.77	0.693
	기업	3.90	0.557
	전체	3.89	0.473
재활용행동	3.63	0.613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4.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개인적규범(4.11)이고 결과에 대한 소비자책임귀인지각(ARC) 4.00, 기업책임귀인지각(ARB) 3.90, 정부책임귀인지각(ARG) 3.7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규범이 3.65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행동 변인의 평균은 3.63으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각 변인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균점수를 보여 주었다.

2. 사회규범과 개인규범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영향력검증

<가설 1>의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설 2>의 사회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가설 3>의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규범과 개인규범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영향력 검증

변인	개인규범	재활용행동
	β	β
사회규범	.429***	.323***
개인규범		.294***
R ²	.184	.273
F-value	100.983***	83.434***

*** p<.001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규범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beta = .42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된다. 단순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의 설명력은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2>와 <가설 3>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활용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규범이 재활용행동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력($\beta = .3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된다.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영향력($\beta = .29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중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의 설명력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검증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조절적 영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변인	재활용행동	
	β	유의확률
개인규범*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107	.819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123	.610
개인규범	.459	.118
R ²	.190	
F-value	35.017***	

*** p<.001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인규범과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상호작용이 재활용행동에 미친다는 <가설 4-1>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조절적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가설 4-2>, <가설 4-3>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규범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변인	소비자 AR		기업 AR		정부 AR		전체 AR					
	개인규범 x 소비자	소비자	개인규범 x 기업	기업	개인규범 x 정부	정부	개인규범 x AR	AR				
β	-.044	.219	.391	-.296	.426	.561*	-.449	.452	.676**	-.453	.491*	.621*
(p)	(.916)	(.353)	(.123)	(.498)	(.105)	(.043)	(.258)	(.110)	(.002)	(.350)	(.046)	(.050)
R ²	.239		.268		.236		.243					
F-value	45.897***		54.758***		45.814***		46.578***					

* p<.05 **p<.01 *** p<.001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각각인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책임귀인지각(AR),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책임귀인지각(AR),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책임귀인지각(AR)이 개인규범과의 상호작용으로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한 전체 책임귀인지각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규범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상호작용이 재활용행동에 미친다는 <가설 4-2>, <가설 3>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개인규범에 대한 영향력 검증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이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5-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개인규범에 대한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영향력

변인	개인규범
	β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	.577***
R ²	.333
F-value	225.556***

*** P<.001 |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용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이 개인규범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은 지지되었다.

F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의 설명력은 약 3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개인규범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가설 5-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의 개인규범에 대한 영향력

변인	개인규범
	β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	.429***
R^2	.184
F-value	98.962***

*** $P<.001$

<표 8>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은 개인규범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2>는 지지되었다. F값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이의 설명력은 약 18.4%로 나타났다.

5. 결과 요약 및 논의

조사대상자의 재활용행동에 대한 사회규범, 개인규범, 재활용행동 등 주요변인의 평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검증의 결과 재활용행동에 대한 사회규범은 개인규범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Hopper & Nielsen, 1991; Osterhus, 1997; 구동모, 1997). 즉 사회규범은 개인적 차원에서 각 개인의 태도로 내면화되어 개인규범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은 개인의 재활용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chofield(1975)와 Osterhus(1997)가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규범은 인지적 정교화 또는 개인규범의 형성 없이도 개인의 재활용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는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opper & Nielsen(1991)과 Osterhus(1997)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에 구동모(1997)의 연구에서 개인규범은 재활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고 환경친화제품 구매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wartz가 그의 사회-심리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면화된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

(AR)과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조절적 역할을 알아보려 하는 <가설 4>는 2개의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에 대한 지각(AC)과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알아보려 하는 구동모(199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Osterhus(1997)의 연구에서는 개인규범과 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이 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규범과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경우에는 조절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귀인지각(AR)과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이 개인규범형성에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가설 5>는 통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된다. 그러나 Osterhus(1997)의 결과에서는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경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재활용행동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재활용행동이 이타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규범적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자들은 우선 재활용행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규범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하고, 재활용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활용행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규범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내면화된 도덕적 가치로서 재활용행동에 관한 개인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우선 재활용행동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과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의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개인규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르게 인식토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로서 환경을 의식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환경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가정에서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소비자의 재활용행동은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시키는 교육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chwartz의 사회규범이론에서 이타주의적 행동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조절변인으로서 행동결과에 대한 책임귀인지각(AR)과 환경행동결과에 대한 지각(AC)을 제시하였으나 선행연

구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도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행동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에는 개인규범이 재활용행동으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09월 06일

□ 심사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1월 28일

【참 고 문 헌】

- 곽인숙·송요숙·김태년·김경애(1998). 환경의식과 가정 쓰레기의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18.
- 구동모(1997). 사회개인규범, 행동결과 중요성지각이 환경친화제품구매재활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저널*, 2(2), 86-113.
- 김중호·정형식(1997). 소비자 리사이클링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무적 리사이클링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마케팅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36.
- 안길상·정영숙·이기주·이동섭(199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유두련(2001). 소비자보증금제도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2(4), 83-101.
- 이연호·박미석(199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행동에 관한 인과적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43-459.
- 이중호·노정구·김인숙(2000). 환경의식적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9(2), 171-195.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환경부(1999; 2002), *환경백서*.
- Antil, J. H.(1978).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behavior : A study of the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 D.
- Black, J. S.(1978). *Attitudinal, normative, and economical factors in early response to an energy-use field experi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Couch, J. V., Garber, T. & Karpus, L.(1978-1979). "Response Maintenance and Paper Recycling".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8, 127-137.
- Davidson-Comings, L.(1977). Voluntary Strategies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Recycling as cooperation.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6, 153-160.
- DeYoung, R.(1985-1986). Encouraging environmentally appropriate behavior: The Role of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5, 281-292.
- Herblein, T. A.(1975). *Social norms and environmental q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New York.
- Hopper, J. R. & Nielson, J. M.(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2), 195-220.
- Jacobs, H. E. & Bailey, J. S. (1982-1983). "Evaluating Participation in a residential Recycling Program".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2(2), 141-151.
- Krebs, D. L.(1970). Altruism-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73, 258-302.
- Luyben, P. D. & Bailey, J. S. (1979). "Newspaper Recycling: The Effects of Rewards and Proximity of Containers". *Environment and Behavior*, 11, 539-557.
- Luyben, P. D. & Cummings, S. (1981-1982). "Motivating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on a college campus".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1(3), 235-245.
- Osterhus, T.(1997). Pro-Social Consumer Influence Strategies; When and how do they work? *Journal of Marketing*, 61(Oktober), 16-29.
- Roberts, J. A.(1991). *Development of profile of the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 for the 1990s and its marketing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PH.D.
- Samdahl, R.(1989).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21)1, 57-81.
- Schofield, J. W.(1975). Effects of Norms, Public Disclosure, and Need for Approval on Volunteering Behavior Consistent with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6), 1126-1133.
- Schwartz, S. H.(1968). Awareness of consequences and the influence of moral norms on interpersonal behavior. *Sociometry*, 31, 355-369.
- Schwartz, S. H.(1973). Normative explanations of helping behavior: A Critique, proposa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349-364.
- Schwartz, S. H.(1973).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Berkowitz, L.(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10, 221-279).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 Howard, J. A.(1980). Explanation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responsibility denial on the personal norm-behavior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441-446.

Stern, P. C., Dietz, T. & Black, J. S.(1985-86), Suppor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ole of Moral norms. *Population and Environment*, 8(3,4), 204-222.

Stern, P. C. & Oskamp, S.(1987). Managing scarce environmental resources. In Stokols, D. & Altman, I.(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1043-1088). New York : Wiley.

Van Liere, K. D. & Dunlap, R. E.(1978). Moral Norms and environmental behavior: An Application of Schwartz's norm-active model to yard-burn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8, 174-188.

Vining, J. & Ebreo, A.(1990). What Makes a Recycler?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